



자연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우리 집은 자연박물관〉

데이비드 스즈키 / 고래이야기

아빠랑 자연 관찰을 하러 가기로 약속한 토요일 아침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시무룩한 아이들에게 집에서 자연 관찰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침대부터 시작해 부엌, 마루, 식탁, 액자, 목욕탕까지! 모든 것이 자연투성이예요. 대자연이 숨 쉬고 있는 제이미와 메건의 집으로 함께 놀러 가볼까요?

신혜원 / 휴먼어린이

〈우리가 사는 자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땅이 있어요. 사람, 동물, 꽃과 같이 생명은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강물에서 우리 집으로, 다시 우리 집에서 강물로 돌아가요. 아침이 되면 뜨는 따뜻한 해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쉬고 살아가지요. 땅, 물, 해, 숨은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열두 달 자연과 만나요〉

임종길 / 열린어린이

일 년 열두 달의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겨울에 보이던 것들이 여름에는 보이지 않고, 봄에 보이던 것들이 가을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열두 달 자연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달마다 보이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곽영미 / 숨쉬는책공장

〈자연이 가득한 계절 밥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는 다양해집니다. 추운 겨울인 1월에는 시원한 뭇국과 뜨끈뜨끈 고구마와 달콤한 굴을 먹고, 2월에는 향이 가득한 더덕구이와 살이 가득한 삼치가 올라간 밥상을 만나요. 그럼 봄, 여름, 가을에는 어떤 밥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밥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 먹거리를 알아보아요.

